

탁아 사전조사작업

정부투자 무관심

보사부 올 탁아사업 예산에 전혀 포함 안돼

탁아소의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탁아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조사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지만 정부쪽의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.

최근 맞벌이부부 자녀 질식사 사건을 계기로 탁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실제 탁아를 필요로 하는 0~6살 아동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.

한국행동과학연구소(소장 이성진)가 올 1월부터 4년계획으로 시작한 '한국의 탁아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'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일한 전국적인 탁아 실태 조사이지만 실제 보건사회부는 중간연락 역할만 할 뿐 재원은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기금(유니세프)에서 2억7천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있다.

전국의 취업도 현황, 전국의 탁아대상 아동현황, 아동보육 실태, 탁아기관 운영현황 등의 탁아수요 및 기초자원 조사연구와 함께 △도시·농촌별로 표준 탁아모형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

유니세프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다.

한편 지난해말 보사부가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 의뢰해 3개월 만에 급하게 조사한 <한국의 탁아사업 시행에 관한 기초연구>

0~6살 대상 아동숫자 통계조차 없어 국제기구 유니세프서만 2억7천만원 지원

△종합적 탁아운영체제 수립 등 탁아전담기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초자료조사 사업이지만 보사부의 90년 탁아사업 예산 1백35억에는 이 조사사업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. 지난해말 유니세프측에서 탁아관계 연구요청이 오자 보사부가 뒤늦게 행동과학연구소와

도 유니세프에서 8백만원을 지원해 추진되었으며 수일내로 발표될 한국여성개발원 <도시 영세지역 탁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>도 유니세프의 1천3백만원 지원으로 이루어졌다.

이에 대해 연구 관련자들은 "무조건 보사부만을 탓할 수는 없다. 정부예산에서 보사부예산의



탁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연구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

를 감안한다면 자체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. 특히 지난해 말 완성된 '한국의 탁아사업 시행에 관한 기초연구'는 "언론에 보도되면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다"는 이유로 보사부가 대외비로 정해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. 이에 대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김정태 회장은 "탁아 실태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공개돼 일반인들의 탁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정부쪽이 자료배포를 금지한다는 것은 모순"이라면서 탁아 사전조사 작업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. <김미경 기자>